

## 신년 법어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부대중 모두가 만사여의(萬事如意)하시고, 오랜 정진의 힘으로 만물을 깨우는 사회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엄중함 속에서 언제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곧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종단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항상 그래오셨듯이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를 이루어 모두에게 베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풀어 주시고, 이러한 상호 존중과 화합의 힘으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는 여러분의 서원과 실천에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그 기운과 복덕이 모두에게 두루 가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일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고향을 찾으신 서산대사처럼, 한 해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있음을 깨달아 새해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갑시다.

신심불이(信心不二)의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사부대중 모두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1월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